



한라봉



무화과



석류

# 전북 아열대 작물 본격 재배

### 농기원, 한라봉·무화과 등 6종 2억8000만원 지원

### 논벼 대체작물 소득 향상·재배 방법 연구도 나서

전북도는 올해 논벼 대신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체작물 연구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해 아열대작물 실증재배에 나선다.

◇아열대작물 실증재배 실시=전북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고창 등 6개소에 2억8000만원을 지원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 작물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실증재배는 한라봉, 무화과, 석류 등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선정해 시설지원의 현대화와 다목적농업 등 에너지 시설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한다. 현재 27농가가 11.6ha에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또 지역의 토질과 기온 등 재배적

응성을 파악해 아열대 과실시장 조기 선점으로 아열대 과일 소비증가에 따른 틈새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평균기온이 지난 100년간 1.5℃ 정도 상승했다"며 "앞으로 아열대작물 연구모임 조직 육성하는 등 아열대 작목이 지역 고소득작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벼 대체작물 연구 주력=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쌀 공급량을 줄이고 식량·사료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에 벼 이외의 작물을 심었을 때 ha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시행하

고 있다. 올해도 전국 4만ha, 전북 6000ha를 목표로 진행한다.

하지만 벼 재배농가는 물빠짐이 나쁜 논에서 밭작물을 재배하기가 쉽지 않고, 농촌인력 고령화로 인해 농기계 보급도 낮아 사업참여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 농업기술원은 논에 대체작물을 재배했을 때 나타나는 예로사랑과 지역별 생육차이 등 현장의 문제점을 찾아내 해결방법을 밝힐 계획이다.

또한 기후나 토양환경에 따라 지대별로 나눠 재배가 가능한 작물을 선정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재배방법을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새로운 작물의 이모작 도입 ▲특화작물 육성 및 단지화 등으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김철수기자

## 시골학교 도서관을 지역문화 중심지로

### 전북도-NHN 집중 지원 협약 주민들에 개방 정보 격차 해소

전북도와 NHN(네이버) 문화재단 등이 방과 후 주민에게 개방되는 도내 시골학교 도서관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전북도와 NHN, 전북도교육청, 전북일보사 등은 18일 도청에서 '학교 마을 도서관 집중 지원제' 협약식을 하고 마을도서관으로 개방

된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 23곳에 1억5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야간까지 운영되는 이 '학교 마을도서관'은 주민이 야간, 주말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지식정보 격차해소 운동을 벌이는 NHN과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등의 기관도 이들 학교에

도서관을 기증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지원키로 했다.

도는 또 이들 도서관에 사화단체와 기업 등이 기증한 컴퓨터를 설치하고 각종 도서를 나눠줄 계획이다.

올해도 군산과 정읍지역 등의 6개 초등학교가 추가로 마을 도서관을 열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학교가 지역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 개비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문화 불균형과 지식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연차적으로 소규모의 도서관을 확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사랑을 담아 주세요

순창군 지역주민들이 순창읍사무소 로비에 설치된 '사랑의 잠도리 쌀'에 쌀을 붓고 있다. 순창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설동찬)는 민족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사랑의 잠도리 쌀' 모으기를 실시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농업육성 33개사업

### 순창군 77억 투입

순창군은 올해 농업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순창군은 고소득 특화작물 집중육성과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33개 사업에 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분야별 소득사업 내용은 ▲소득사업 분야 18개 사업 36억9400만원 ▲식량작물 분야 15개 사업 39억7300만원 등이다.

소득사업 분야는 ▲가능성 특화작목(무지콩) 단지조성사업 6억원 ▲딸기 3중하우스 설치지원 1억5900만원 ▲복분자·블루베리 비가림하우스 지원 16억4800만원 등 18개 사업에 36억94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소득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다음달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순창군 이구연 농정과장은 "새해 농업소득사업 규모를 지난해보다 5억원 늘렸다"며 "이를 통해 지역농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순창고추장 하늘서도 인기

### 항공사 기내용 납품 세계 입맛 잡아

순창 고추장이 기내용으로 공급돼 탑승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18일 순창군에 따르면 대성(주) 청정원과 사조(주) 순창공장 두 기업에서 우리나라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용 고추장을 납품하고 있다.

기내용 고추장은 순창고추장에 쇠고기, 마늘 등 갖은 양념을 넣고 일회용 튜브에 포장해 간편하게 비벼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사진>

대성(주) 청정원의 '우리쌀로 만든 고추장'은 15g과 30g 두 종류로 지난 2004년에 납품을 시작해 지난해는 95t(8억7000만원)의 납품 실적을 거뒀다.

또 사조산업(주) 순창공장 역시 아시아나항공에 지난해에만 120t(12억원)을 납품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기내용 고추장은 전세계 탑승객들에게 한식과 함께 고추장(Gochujang) 고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 장류산업은 지역 총생산의 52%, 국내 장류시장의 19%를 차지하며 전통 장류제조업체 75개소 등 총 85개 장류제조업체가 활발하게 활동중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무주 기업도시

### 개발계획 취소

### 개발구역 지정 해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북 무주에 조성하려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계획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무주군 안성면 일원에 내려졌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조지도 해제됐다.

무주 기업도시 개발계획은 대한전선을 모기업으로 한 무주기업도시(주)와 무주군에 의해 추진돼 왔으나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대한전선 사업이 포기하면서 무산됐다.

문화부는 개발구역내 각종 규제조 불만을 겪어 온 주민들의 고충해소를 위해 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무주지역 관광개발, 체육시설 지원 등을 위해 편성된 올해 예산 580억원을 조기 집행키로 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전북 성장 익산이 이끈다

### 식품클러스터 조성·녹색산업 유치·10대 동력산업 중심지 부상

익산시가 전북지역의 새로운 성장의 이끄러 갈 '10대 동력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도 10대 성장동력산업은 지난 2009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총 사업비 6조7192억원이 투입된다. 익산시 역시 8082억원을 들여 국내외 유수의 식품기업, 연구소 및 식품과학대학원 등을 유치해 동북아 식품수도로서 우뚝 서게 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가 핵심과제인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산업 분야로 ▲LED 농생명융합기술 및 산업화 ▲전북

LED융합기술지원센터 및 식물공장 구축 ▲R&D 및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LED협동화단지 건설을 위해 1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LED조명 공업 협동조합과 MOU를 체결하고 익산의 미래를 책임지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에 앞서 RFT(방사선융합기술)사업중 방사선영상기술 분야를 특화해 종합 의료과학산업단지 내에 방사선영상기술센터를 102억 원을 들여 완공, 관련기업 8개 업체에서 320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또 KAIST와 공동으로 국가사업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창업보육센터 건립 등을 통한 RFT 최첨단 도시로 재탄생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새만금개발과 더불어 전북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군산~익산~완주로 이어지는 '태양광 솔라벨트' 구축사업에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추진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전북도 10대 성장동력산업 중심지로 부상해 대한민국 익산시대를 열어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 한기형씨 대상 수상

### 군산시 철새 UCC 공모

군산시가 '2010 군산 세계철새축제'의 연계행사로 진행한 '생태사랑 UCC 공모전' 대상작에 한기형(서울시)씨의 '군산철새의 향연'이 뽑혔다.

최우수상에는 이정민(전주시)씨의 '군산백 아기철새'가 선정됐으며 신미연(경기도 부천시)씨의 '철새의 천국 금강호' 등 11개 작품이 입상했다.

이번 '생태사랑 UCC 공모전'은 '공존(共存), 철새, 사람 그리고 철새축제'란 주제로 전국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시는 이번 UCC 공모전 입상작을 향후 철새조망대와 철새축제의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백금석기자 nogusu@

광주MBC 문화탐방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기획여행 신고업체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 "광주MBC 문화탐방" 을 치십시오.

# 방콕·앙코르왓

## 무안 ↔ 방콕 직항 전세기

### 2011. 1. 30 ~ 3. 27 (총 17회)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양국정부인가조인) © 랜드뱅크여행사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42-10

목요일 (3박 4일) 출발  
2월 3, 10, 17, 24일 / 3월 3, 10, 17, 24일

일요일 (3박 5일) 출발  
1월 30일 / 2월 6, 13, 20, 27일 / 3월 6, 13, 20, 27일

관광 799,000 부터~

캠보디아 육로 899,000 부터~

골프 1,049,000 부터~

허니문 5일 초특급호텔·럭셔리호텔 1,349,000원

포함사항:
 

- 일정에 따른 현지 호텔비(2인1실), 식사비, 입장료, 현지공항세
- 국제선항공료, 무안 출/공역세, 전정보행료, 1인당 여행자보험
- 입국비 및 전행안마 2시간 (1회 포함)
- 특식 (태국식-사트사트, 수끼, 로말내사우트, 한식-삼겹살)
- 불포함사항:
  - 기사/가이드 팀 전 일정 US\$30~40/인 별도
  - 유류할증료 68,000원 (성인/아동 동일)
  - 캠보디아 육로 비자 별도 \$53/인 - 사전에 지정
  - 골프장대금비 - 골프장에 따라 캐디비, 전동카트, 캐디

크리스탈타이항공 · 광주MBC 문화탐방 전세기 사무실  
[문의전화] 062)226-6070